

## Symbolism of Clothes expressed in Contemporary Art

Huh, Jung-Sun\* · Geum, Key-Soo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ong Ik University

As contemporary art tends to diverge from its fixed genres and intends to appeal to the public, fashion comes to contribute to the contemporary art area, by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the creation of artistic value of art work. Nowadays, it is not unusual to see fashion work shown in an art exhibition parallel with art work, since some artists adopt clothes as the medium of their work in order to explore various means of expression.

The occurrence of philosophical, sociological theories concerning human body paralleled with the prevalence of the post-structuralist ideas and occurrence of various styles of artistic expressions of body encouraged active research and attracted social attention to body. With such background, fashion art was formed by a means of the integration of body and fashion in order to create extreme artistic expression. I intend to investigate a variety of trends in fashion art from the viewpoint of Fashion Art,

This study developed criteria for fashion image in contemporary art. Those criteria are based on the dichotomy that divides body into inner aspects and outer aspects. According to the criteria, Firstly, the extension type of body shape includes enlargement and reduction as its sub-types. Secondly, the opening-closure type includes opening type and closure type as its sub-types. Thirdly, the intensity type categorizes clothes into uniqueness and hybridity. Dynamism type classifies fashion art into fixation and moving.

The various expressions of clothes type are interpreted as a means by which we can criticize

many phenomena of modern society, such as loss of humanity, isolation of individuals, loss of identity, commercialism, and materialism. This implicates that the body in the 20th century, art attempts to show the hidden power of body, which has been suppressed and isolated before. In the latter period of modern society, the integration of the double-faced nature of body and spirit was attempted and popular fashion was introduced into art in order to express desire, death, gender, identity, and sexual pleasure. Through this trend, contemporary social, cultural situations were realistically illustra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s between fashion art and body, I found that body image involved in fashion art has more than a single visible dimension. It is not just a physical visual space but also a conceptive space, which implies a field of social interactions.

These clothes of the contemporary art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true characters of conventional costumes and of contemporary fashion. In other words, through fashion art, artists can express their intentions and are not restricted by the conventional functions of clothes; that clothes should be worn on the body. Therefore, fashion art enabled artists to create unlimited meaning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contemporary fashion. Due to the multiplicity of the special meanings, a contemporary fashion artwork is no longer understood by a single interpretation but as a symbol that includes multiple meanings.

## 현대 미술에 표현된 의상의 상징성 연구

허정선\* · 금기숙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 홍익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교수

현대미술의 탈장르적 양상 및 대중성과 더불어 패션이 예술적 가치에 많은 비중을 부가함으로써 미술작품과 함께 전시장에 등장하게 되었고, 예술가들 또한 미술작품의 소재로써 의상을 차용하여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에 등장하는 의상을 연구 범위로 하여, 먼저 1970년대 후반기 미국 여류 섬유작가들의 예술의상운동에 표현되었던 작품들과 현대 설치미술 및 신체미술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의 형식과 의미들을 차용한 작품들, 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패션디자이너의 작품들 등, 의상의 형태를 빌어 작가의 예술의지를 표출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전시회도록과 비평자료들을 바탕으로 의상의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와 함께 신체에 관한 철학적 사회학적 담론들의 대두와 더불어 예술에 나타난 신체미술의 다양한 표현과 양식들의 등장으로 신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신체와 패션의 결합을 통한 예술적 표현이 극대화된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들을 『패션아트』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대미술과 패션의 신체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메를로 폰티(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적 관점과 들뢰즈(Gilles Deleuze)의 "기관 없는 신체"론의 시각, 푸코(Michel Foucault)의 성을 지식과 권력의 개념으로 해석한 담론들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시각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현상들로 확인되었다.

현대미술에 등장하는 의상은 몸의 경계를 통해 내적인 국면과 외적인 국면으로 대립되는 이분법적 대립구조에 따라 분류 기준이 도출되었으며 크게 연장성, 개폐성, 강도성, 역동성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연장성"은 일반 의상의 이상적인 크기나 비례에서 벗어나

주변공간으로의 확대와 의상의 한 부분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유형과 의상의 형태가 신체의 내부로 함축되어지는 축소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폐성"은 신체와 의상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개방적 경향과 신체를 전통적인 의상 형태를 벗어난 또 다른 공간으로 표현해 신체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은폐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도성"은 이미지는 신체의 기본적 비례와 구조를 유지하며 단일한 소재로 표현된 단일성의 작품유형과 이질적인 소재의 도입과 재료를 사용하여 사회비판적 이미지를 도출해 낸 혼성의 작품들로 나타났다. 넷째, "역동성"은 몸을 압박하여 새로운 이상적 형으로 고정시키거나 몸의 부분적 움직임과 활동을 제한하는 고정성의 유형과 일상 사물들로 전환되어 표현된 주체이동성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양상이 의미하는 상징성은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 및 획일화되고 몰개성화되는 현상들, 물질주의의 소비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몸과 정신의 이중적인 성격의 통합이 기화된 후기 현대사회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패션을 도입해 인간의 욕망, 죽음, 젠더, 정체성, 성적 쾌락 등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대 미술의 패션아트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표현과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과 역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나의 작품에서 하나의 해석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다층적, 다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호로서 나타났다는 점이 현대 패션의 정체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